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를 찾아서

취재 : 이 흥 재

집단양계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동두천분회와 같이 기술과 경력이 풍부한 전업양계가 끼리 모여 집단을 형성하여 병아리나 사료, 약품등의, 공동구입, 계란이나 노 폐계, 육계, 계분등을 공동판매를 하여 소득을 더욱 높이는데 주 목적을 두는 것과, 또 하나는 양계경험이 적은 양계가끼리 집단을 형성, 사양관리나 초생추의 공동육성 등을 주 목적으로 하여 이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번호에는 창립한지 아직 2돌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한 동두천을 생년 2리 821번지에 있는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를 찾아 보았다!

경제적 약자인 소규모 생산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소생산자끼리 뭉쳐야만 살 수 있다!

여기 소개되는 동두천 분회도 재작년 경제불황으로 비참하게 도산되는 군소양계가들을 보고, 우리 동두천 양계가들도 이런 시련에 대처하여 서로 뭉쳐보자는 의도 밑에서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를 설치하게 됐다.

공동구입과 공동판매를 하여 중간상인의 착취를 배제하고, 신용조합을 개설하여 회원의 복리를 향상하고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회원의 경제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고 있다.

불과 2돌도 안되는 분회로서는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적지 않은 적립금까지 마련되었고, 2백3십여만원까지 대어해 주는 풍부한 분회로 성장했으며, 동두천분회의 사업성과를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뭉쳤다.

73년의 경제불황기는, 업계의 침체와 사료가격이 등귀와 반대로 양계산물은 생산과잉이 되어 원가이하의 헐값으로 팔지 않을 수 없었

던 양계인에게는 최악의 조건에 처했던 때였다. 이런 혼란기에 편승하여 중간상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폭리를 취했었고, 그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생산자는 출혈에 출혈을 강요당하다가 결국에는 도산을 한 양계인이 부지기수였다.

이 때에 동두천 양계인은 단합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데에 의견에 일치를 보아 중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여 74년 2월 18일 대한양계협회분회로 승인을 얻어 그 즉시 사업에 착수했다. 사료나, 병아리, 기구, 약품등을 공동구입하여 중간상인의 착취를 배제하는 직거래방식을 행하여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계란, 노계, 육계, 또는 계분등도 중간마진을 배제하여 공동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직거래 방법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향상시켜, 영구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회와 긴밀한 연락으로 기술 및 정보를 신속히 익혀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가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양계인 사회의 좀더 높은 소득 증대와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여 명랑하고 부유한 내일을 위해 굳게 단결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고 회원 모두가 말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동두천분회의 주된 사업내용은 공동구입과 판매, 우수품종알선,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및 선진지 견학등 이외에도 부대사업으로 신용조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신용조합 개설 이유

는 제란이나 폐계 육계 등의 직매장을 설치하면 세금의 부담이 크므로 이것보다 더 뜻있는 사업으로 신용조합을 설치했다고 한다.

사료구입을 보면, 회원 25명을 몇 팀으로 만들어 회원이 마음대로 사료를 취사선택하여 몇개의 사료를 구입하는데 이 방법의 이점은 공장과의 직거래로 중간마진을 없앨 수 있으며, 사료회사별로 경쟁의식을 일으켜 강요없이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구입된 사료를 서로 비교하여 볼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사료를 농장까지 도착시키고도 포당 10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전체로 보아 중간상인은 실수요자를 대량으로 외상거래를 만들어 받을 묶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득을 착취할대로 착취하여 왔었다.

현 동두천 회원들이 사양하는 수수는 성계 중추, 초생추 모두 합쳐서 14만수 정도가 되는데 1일 사료소모량만 해도 14톤 정도라고 한다.

사료의 거래방법도 보통 1개월 거치의 어음거래를 취하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료를 구입하고 있다.

케이거나 다른 기구도 대량구입조건으로 공장도가격 보다도 더 싸게 구입되고 있다.

물론 약품도 원가에 구입된다고 한다. 초생추 구입에서도 각회원의 의사에 따라 몇 종류를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신용있는 부화장과 품종의 선택을 엄선하게 되고, 비교적 염가로 자질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서로 사양하는 계군을 시험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사료로만 따져도, 1일 14톤 정도의 소모량이라면, (포당 100원의 이익이라면) 1일 7만원의 이익을 공동구입으로 얻는 셈이 된다.

닭의 사양관리나, 예방 및 소독은 회원 자유로 하고 있으나 보통 방역관계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사양관리는 자주 모여 서로 토의가 되기 때문에 일반양계가보다 정보에 빠르게 된다.

서로 가까운 이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조사와 병계의 조기발견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된다.

♣회원의 제반규칙

동두천 주변에 거주하는 양계인으로서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입회할 수 있으며, 권리로 는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임무는 회칙과 제규정 및 각급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결의 하거나 회원의 3/1 이상이 목적이 명시됐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의 종류는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로 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한다.

재정면에서는 지부의 경비는 회비와 국고응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회원 회비는 입회비 10,000원과 년회비 1만원으로 한다고 창설시는 규정했으나, 현재는 그 동안의 적립금의 관계로 부득히 입회비를 2만원으로 올리지 않을수 없으며 회비도 1,000원으로 해야된다고 한다.

회칙의 개정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동두천분회 회원명단과 사양수수

① 분회장 :	최진삼	(65,000)
② 이 사 :	최영식	(10,000)
③ 이 사 :	이호성	(8,000)
④ 이 사 :	황현익	(4,000)
⑤ " :	서상선	(3,000)
⑥ " :	김인서	(17,000)
⑦ 감 사 :	김필선	(8,000)
⑧ " :	전대홍	(2,600)
⑨ 회 원 :	이원지	(15,000)
⑩ " :	정인백	(13,000)
⑪ " :	허봉덕	(1,200)
⑫ " :	이정웅	(6,000)
⑬ " :	송복근	(4,500)
⑭ " :	백종원	(3,000)
⑮ " :	김형모	(5,000)
⑯ " :	김결	(10,000)
⑰ " :	김지양	(1,000)
⑱ " :	최창환	(1,000)

- ①9 " : 강 태 성 (4,500)
- ②0 " : 한 상 준 (8,000)
- ②1 " : 안 성 열 (2,000)
- ②2 " : 김 광 우 (4,500)
- ②3 " : 윤 준 원 (2,500)
- ②4 " : 최 윤 (2,000)
- ②5 " : 강 명 근 (5,000) 이상 25명



〈軍 계란 보내기운동에 앞장선 분회원들〉

♣신용조합사업

동두천분회의 가장 전망되는 사업이다. 개점은 74년 2월 15일에 했으며 아직 인가가 안나왔으나 현재 신용이 좋아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자금관계로 낙농분야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동두천 회원들이 계사의 신설, 개선, 조생추, 사료, 자재의 구입 등에 다액의 자금이 요함을 감안하여, 적금으로는 부족함을 이런 신용조합을 개설하여 회원의 자금의 융통과 대여하여 외형을 불려나가자는데서 시도됐다.

경제적 약자인 소생자들로는 대기업자의 보조를 맞추려면 필연적으로 자금의 융통이 필요하게 되는데, 동두천분회는 신용조합을 개설하여, 현재는 3십여만원까지의 대부를 할 수 있는 짹짹한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란?

동두천분회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현황판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자간

의 자발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은 행이다"라고 써있다.

이에 따라서, 조합원이 어려울때, 병났을 때, 궁색할때, 기타 불행에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이나 예탁금과 적금의 수입을 자금매출하기도하고, 조합원의 공제료등을 대리수납하고, 여유있는 자금은 외부에 투자로 한다.

♣조합원의 가입과 가입절차

자격 : 만 20세이상 동두천에 거주하는 양계가로서 1,000수 이상 사양하고 있는자면 된다. 가입절차는 이사회회 의 승인을 얻어 가입금을 납부하고 출자금 1좌이상 불입하여야 된다.

♣탈퇴와 제명

탈퇴는 개인사정으로 인할 때는 60일전에 통고하고 사망, 파산, 등도 탈퇴의 원인이 되며 탈퇴하기전 조합에 채무나보증관계를 사전에 정리해야되며 배당금은 연말에 지급받게 된다.

제명은 의무불이행자나 중대과실도 조합에 피해를 주었거나, 사업이 망한자에게 10일전에 통고하여 준다.

♣조합의 운영과 관리

1. 출자금

회원의 주된 업무로서, 조합원의 자본금과 1좌이상 의무 출자해야 되며 수시불입할 수 있다. 1인이 총출자액의 10/100을 초과치 못하며, 수시 환불은 불가능하고 인출시는 60일전에 사전통고를 해야된다.

2. 예탁금

a. 보통예탁금 : 일반은행의 통장에금과 같고 이자는 보통 1.8%이다.

b. 새살림에탁금: 은행의 새생활 예금과 같고 연 4.8%

3. 정기예탁금: 일정기간 목돈을 불입하는 예탁으로 고액의 이자를 보장 받는 은행의 정기 예금과 같고, 연 20%정도

4. 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 불입후 만기일에 목돈을 찾는 저축방법으로 일반은행과 같다. 그리고 1/3이상 납부된 자는 제약액 범위내에서 대부가 가능하며 장려금은 일반은행의 2배가 된다.

※ 기준 적금표(권장사항)

기간	계약금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6개월	815	1,630	8,150	16,300	48,960
12개월	400	799	3,995	7,990	23,970
18개월	261	521	2,605	5,210	15,630
24개월	191	381	1,905	3,810	11,430

※ 장려금 지급표

기간	계약금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12개월	106	214	642	1,060	2,140	6,420
18개월	156	304	942	1,570	3,140	9,420
24개월	190	382	1,146	1,900	3,820	11,460

대부의 종류(대출금리 최고 연25%)

1. 출자금 예탁금의 범위내에서 대부받는데 이사회 이사들의 심사가 있어야 되며, 연대보증인은 생략한다.

2. 긴급대부는 조합원의 가정에 재난등이 있을때 대부해 주는데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대부 받는다.

3. 소액대부는 회원의 편리를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소액을 활용할 수가 있다.

4. 보통대부는 출자금보다 고액을 대부받는 것으로 최고한도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연대보증인 2명 이상을 세워야 된다.

5. 적금대부는 적금한도액에서 대부하는 것으로 적금계약자에 한하며 1/3이상 불입한자로서 연대보증 2명 이상 세워야 되고 대부시 1개월 전에 이자지불하고 적금 계약은 말일에 자동 상환된다.

♣대부심사방법

1. 대부 신청서 확인을 하는데, 2인의 연대보증인, 신청인 주소, 성명, 신용조사서와 신청금액과 용도 상환방법을 확인한다.

2. 심사는 이사들의 과반수 참석에 전원 찬성해야 되며, 소액 및 단기자금을 우선 대부하며, 생산과 비축성 용도에 우선으로 대부한다.

3. 승인 및 대출은 대부용도, 상환능력, 신용도, 상환성적참작하여 대출한다.

♣조합자금의 관리

1. 적립금은 결산후 순이익금에서 적립되며 법정적립금은 순이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특별적립금은 순이익에서 15%를 필요에 따라 적립하고 임의적립금은 10% 범위에서 적립된다.

2. 공제제도를 조합자산의 안전관리와 조합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부가 실시하는 보험제도와 출자금과 대부금의 65/10만을 매월 조합이 부담하여 불입하고 조합원에게 공제혜택은 대부보증공제는 30만원까지 사망시나 영구 불구자에게 지급한다. (70세까지) 저축 생명공제는 20만원까지 사망시에 지급한다.

3. 배당금은 결산후 순이익에서 적립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좌) 수에 따라 배당 하는데 전월말일 현재 납입 완료된 출자금에 대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배당한다. 배당은 현금 또는 출자금에 예입할 수 있다.

이상은 동두천 분회 신용조합사업의 내용일부를 간추려 본 것이다.

♣동두천 분회회원들의 소리

최영식; 저희 분회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지만, 전국적으로 지부나 분회가 서로 증앙회를 중심으로 뭉쳐 사료구입이나 계란판매를 본회의 통괄하에 구입하거나 사료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드는군요. 그리고 정부의 면세관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며, 현재 양계 업계는 번동이 심하여 과세가 되면

적자 운영을 하게 될 것은 명약관하란 일이라 보며 난가가 안정선에서 생산되도록 한 다음 과세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선 ; 전국적으로 더 분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며 중앙회도 인원을 더 충원하여 각 분회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갈도록 했으면 하며, 각분회에서 중앙회에 충원을 위한 회비를 내어 중앙회로서의 면모를 더욱 살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인서 ; 대군업자들 중에서 독지가가 나와서 기부금을 내어 중앙회를 도와 줄만도 한데, 정말 중앙회의 적은 재정을 보면 분회의 입장으론 가슴이 아파오는군요, 저희 동두천분회는 각처 지부가 찬성한다면, 본회 인원보충과 기동력을 위한 승용차를 기부금을 모아 기부하는데 적극참여 하겠습니다.

김광옥 ; 저는 종계를 몇수 기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종계수수는 제일 적합한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년도까지는 G.P.S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업계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드는군요. 그리고 각분회별로 선전비를 중앙회에서 각출하여 계란의 유효성과 영양학적면을 마스크를 통해 선전하여 소비층대를 꾀했으면 합니다.

이호성 ; 지금 말씀들 하신 것이 저희회원 모두가 중앙회에 바라는 마음이며 중앙회가 적극추진하여, 분회를 더 설치하여 전국 소군과 대군양계자가 모두 일치단결하도록 했으면 하

며 각 양계분야별로 전국적인 단합대회나 강습회를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김인서 : 일부 몰지각한 사료공장이 있어 저를 5-6월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료를 6년거래했는데 염분부족으로 사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그 사료는 전혀 먹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는 “도끼에 발등찔는다”란 속담 그대로입니다. 어음을 끈어준터라 변상 조치도 못하고, 사료를 감정하지니 절차가 복잡하여 막심한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만, 중앙회에서 이런 점을 소상히 들어 경비는 지부에서 부담할터이니 사료감정을 맡아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영식 : 저는 ○○사료를 구입하여 쓴 적이 있는데 ○○첨가제가 함량 이상 첨가 되어 있는데도 영양실조 닭이 계속 나오기에 사료 회사에 항의도 해보았으나, 분석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요즘은 따로 첨가제를 구입하여 먹고 있습니다.

이호성 : 월간양계에 게제됐던 위배사료내역은 양축가 입장으로서는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원지회원의 농장이 시설과 사양관리, 장부기장방법이 아주 이상적이라는데 시간 관계상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동두천분회를 떠나오면서도 본 기자의 마음은 상부상조로 뭉쳐 있는 동두천 분회를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했다.

신진가축약품

각종대동물용홀몬제입하
유방염치료제 (스페살포몰라
바이오테프

네오린칼
린칼부록
카우믹스

주소 : 서울 · 서대문구구과발동25
전화 : ㉠ 9772

